

싱가포르 국제 콩쿠르, 전공·비전공·장애인부 전부 수용... "권위 있는 시상이 다르다"

기사입력 : 2026.06.05 12:18



싱가포르 국제 콩쿠르, 전공·비전공·장애인부 전부 수용... "권위 있는 시상이 다르다"

비대면 싱가포르 국제 콩쿠르 6월 개최... 나이·전공 제한 없어 화제

[국내매일= 안오명 기자] 전 세계 어디서나 참가할 수 있는 온라인 국제 음악 콩쿠르가 오는 6월 개최된다. 이번 대회는 싱가포르 현지인과 교민, 그리고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 다양한

국적의 참가자가 함께 경쟁하는 명실상부한 비대면 국제 콩쿠르다.

시상 역시 차별화 포인트다. 국회, 시청, 언론사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이 시상에 참여하여 수상의 권위를 높였다. 언론 보도를 통해 제자를 지도한 선생님의 커리어에도 직접적인 도움이 된다고 현장 교사들은 전한다.

참가 부문은 클래식, 실용음악, 크로스오버 전 부문에 걸쳐 있으며, 전공자와 비전공자를 가리지 않고 장애인부도 별도로 운영된다. 나이 제한이 없어 유아부터 성인까지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는 점도 기존 콩쿠르와 다른 점이다.

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되는 만큼 사전 접수도 가능하다. 바쁜 교육 현장의 현실을 반영했다. 참가 및 문의는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가능하다.

http://pf.kakao.com/_srtxmn

[안오명 기자 cbc2047@naver.com]

<저작권자©국내매일 & newsm.kr 무단전재-재배포금지.>